'Doosan Art LAB 2019'는 두산아트센터에서 2010년부터 진행해 온 두산아트랩 Doosan Art LAB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격년으로 만 40세 이하의 잠재력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올해는 전시를 Part I, Part II 로 나누어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는《Doosan Art Lab 2019: Part I》을, 8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는《Doosan Art Lab 2019: Part II》를 진행한다.

Part I에서는 회화와 조형 작품을 매체로 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Part II에서는 영상을 매체로 한 작가들을 선정하였다. 이번 전시《Doosan Art Lab 2019: Part II》에서는 강기석, 박선호, 신정균, 이은희의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강기석은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무력감을 타인의 존재를 비추어 표현하거나 수행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인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박선호는 사적인 이야기들과 그와 연관된 이미지들을 수집하면서 이미지 생산 과정을 역추적하거나 이미지의 의미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되짚어간다. 신정균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해 방치되거나 잊혀진 것들을 현재로 소환하고 이를 일상과 병치시켜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낸다. 이은희는 영상 작업을 통해 이미지의 의미와 매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그 한계와 확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강기석(b.1986)은 고려대학교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종합예술학교 조형예술학과 전문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혁신파크 예술동(2017, 서울, 한국), 스페이스99(2011,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소마미술관(2018, 서울, 한국), 두산갤러리 서울(2018, 서울, 한국), 아르코미술관 (2017, 서울, 한국), 아트스페이스 풀(2017, 서울, 한국), 선잠 52(2017, 서울, 한국), 아트 스페이스 풀(2016, 서울, 한국), 오픈스페이스 배(2014, 부산, 한국)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박선호(b.1993)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석사과정 중이다. 일현미술관 을지로 스페이스(2018,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2019, 오타와, 캐나다), 일현미술관(2019, 양양, 한국), Hui Gallery(2019, 샤텐, 홍콩), 우석갤러리(2018, 서울, 한국), 노타하우스.소소리(2018, 서울, 한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신정균(b.1986)은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영상매체예술 연합전공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아웃사이트(2018, 서울, 한국), 아트스페이스 오(2016, 서울, 한국), 송은 아트큐브 (2013,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코리아나미술관(2019, 서울, 한국), 아마도 예술공간(2019, 서울, 한국), 서울대학교미술관 MoA(2019, 서울, 한국), 주홍콩한국문화원(2019, 홍콩), Stroom Den Haag(2018, 헤이그, 네덜란드), 의외의조합(2018, 서울, 한국), 국립아시아문화 전당(2017, 광주, 한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이은희(b.1990)는 베를린예술대학교 시각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의 마이스터슐러를 졸업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하였다. 개방회로(2017, 서울, 한국), 공간291(2016,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부산현대미술관(2019, 부산, 한국), 아카이브 봄(2019, 서울, 한국), 코리아나미술관(2019, 서울, 한국), 아트스페이스 풀(2018, 서울, 한국), 인천아트플랫폼(2018, 인천, 한국), 홍가 뮤지엄(2018, 타이베이, 대만), gallery damdam(2018, 베를린, 독일), 갤러리 175(2017, 서울, 한국)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